

탐진치의 어리석음, 몸짓으로 털어낸다

파사무용단 2015신작 '붓다이야기 첫 번째' 선보여

'붓다, 일곱겹의 꽃'을 통해 2년 연속 전석매진을 이뤄내며 현대무용의 새 장을 열었던 '파사무용단'이 2015년 신작 '붓다이야기 첫 번째-버려야 할 것들...'을 11월 5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막한다.

한국사회는 살인, 자살, 문치마 폭행 등 사건 사고들이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

다. 파사무용단의 황미숙 안무가는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원인을 탐욕(貪, 탐내어 그칠 줄 모르는 욕심), 진에(瞋, 노여움), 우치(癡, 어리석음)의 3독에서 찾았다. 파사무용단의 이번 작품에서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불교의 3독을 몸의 언어로

11월 5일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현대사회 문제 해결방안, 예술로 제시 수익금 소외계층·장애우 위해 사용



파사무용단은 우리사회의 산적한 문제원인을 '삼독'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불교적 수행을 몸으로 표현한다.

에도 부처님을 종교적 지도자로서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비중있게 다뤘으며 특정 종교를 넘어 일반 대중들에게 작품에 대한 공감도를 높였다. 매 작품마다 동양과 서양, 고대와 현대의 어려움을 새로운 시각으로 안무하는 '파사무용단'에서 3독을 버리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풀어냈을 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이와 함께 파사무용단의 '붓다이야기' 수익금은 소외계층 청소년 및 장애우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파사무용단은 10월 8일 쇼케이스 및 후원의 밤 형식의 제작발표회에서도 성금이 파사무용단의 공연 제작에 후원될 뿐만 아니라 소외계층 및 장애우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사무용단은 다양한 창작활동을 하면서 그와 함께 사회적 이슈, 문제점들을 직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함께 시민 참여형 작품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3년째 후원의 밤을 개최해 이를 통해 모인 성금의 일부를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또 파사무용단은 매년 불교, 환경, 청소년을 주제로 한 공연을 무대에 올리고 있다. 이에 2015년 국내 무용계 최초로 '조계종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한편 이번 '붓다이야기'는 불교신자 20% 할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다. (02)2272-2152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풀어낸다. 황미숙 안무가는 "이러한 3독을 버림으로써 사회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 타인의 시선에 의해 살아가는 분주한 세상 속의 내가 아닌 진짜 '나'를 찾는 것"이라며 "나의 내면세계를 바라보고 존재의 자아를 찾길 소원하며 이번 작품을 안무했다"고 말했다.

파사무용단은 난해하게 여겨지는 현대무용의 벽을 낮춰 미술, 음악, 문학 등 폭넓은 장르와의 교류하며 대중과 소통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불교무용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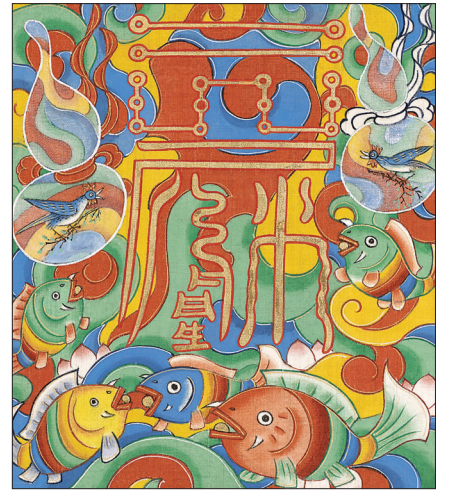
별을 향한 기도, 불교로 해석하다

양선희 작가, 11월 4~10일 '합격진문전'

우리 조상들은 새벽에 긴 우물물을 한 양 사발에 담아 장독대에 놓고 복극성을 향해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했다. 불교가 동양으로 들어오면서 복극성은 금륜 불경치성광여래가 되고 사찰의 대웅전, 산신각, 삼성각, 칠성각 등에 굳게 자리를 잡아 오늘에 이르렀다. 중요무형문화재 48호 전수교육조교 양선희 작가는 바로 이러한 칠성신앙을 그림과 상징으로 형상화한 '합격진문전'을 11월 4~10일 종로 인사동 이즈갤러리에서 연다.

양선희 작가는 천문(天文)을 형상화한 '전서체'에 주목했다. 전서체는 부정에 쓰이는 문자로 옛 부적에는 초기 한자와 문양이 함께 어우러졌다. 양선희 작가는 불화전수조교로서 극락세계에 피어나는 여러 가지 꽃과 상징을 불탑 형식으로 그렸다. 특히 삼베에 그림을 그리는데, 천연 안료까지 써서 색채와 질감을 고려했다.

양선희 작가는 "붓다의 법을 깨우치는



양선희 작 '자리가 없어 죄송해요'

한 계단이 되기를 소망해본다"고 말한다. 양선희 작가의 합격진문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조상들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을 수많은 목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하다.

노덕현 기자

신작찬불가 공모 대상 '삼보송'

조계종, 심사결과 발표... 수상작 음원 제작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가 주최한 2015 신작 찬불가 공모 대상에 '삼보송'이 선정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입)는 10월 23일 '2015 신작 찬불가 공모 사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불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찬불가를 창작·보급하기 위해 열린 2015 신작찬불가 공모전은 총 19곡의 응모작이 접수돼 엄정한 심사를 거쳤다.

심사결과 대상에는 김건우 씨의 '삼보송'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김동욱 씨의 '약사여래부처님'이, 우수상은 유수우 씨의 '부처님 세상'과 강주현 씨의 '관음찬양가'가 각각 수상했다.

장려상은 김지현 씨의 '부처님을 만나

는 방법', 노곤운 씨의 '석가모니불', 류권하 씨의 '저녁산사'가 이들을 올렸다.

2015 신작찬불가 공모전의 대상작 '삼보송'은 세 개의 성부가 각자의 소리를 내나 한 화음 안에 있듯이 삼보가 세 가지 면을 가졌지만 본래 하나임을 표현하고자 만든 곡으로 심사위원회에는 "구성력과 불교적인 대중선율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노랫말이 돋보이는 곡"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동욱 씨의 '약사여래부처님'은 "국악적 장단을 바탕으로 한 친숙한 리듬의 곡으로 전통의 리듬과 현대적 멜로디가 조화롭게 표현된 곡"으로 평가를 받았다.

신성민 기자

"불교 음악 대중화 발돋움, 음성공양 본의미 되새겨"

조계종,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성료'

25일 케이아트홀서 개최 대상에 나유타불교합창단

한국 불교 음악 대중화를 위한 합창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25일 더케이아트홀(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제6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조계종 문화부와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합창제에서는 총 22개 합창단, 1500명이 참가해 서로의 기량을 겨뤘다.

이번 합창제 대상에는 대구 나유타 불교합창단(단장 최정애)이, 최우수상은 제주 관음사 관음자비랑 합창단(단장 장부임)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우수상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악사 가톨릭가합창단(단장 차금숙)과 청주불교방송 부부나합창단(단장 연경희)이 선정됐으며, 장려상에는 청량사 등근소리합창단(단장 손현숙), 불광사 바라밀합창단(단장 정경성) 등 6팀이 이름을 올렸다.

지휘자상은 권준대 대구 나유타 불교합창단 지휘자가, 반주자상은 강희원 전남목포 사암연합 에밀레합창단 반주자가 수상했다. 대회 대회에 출전하고 있는 전남목포 사암연합회 에밀레합창단 지도법사 겸 지휘자 효천 스님은 불교합창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특별상을 받았다.

조계종 문화부장 혜입 스님은 "앞으로 불교합창페스티벌이 불교 음악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신작 찬불가의 지속적인 개발



조계종은 10월 25일 더케이아트홀에서 '2015 불교합창페스티벌' 제6회 찬불가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합창제 대상 수상한 나유타불교합창단의 공연 모습.

과 대중화를 위한 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페스티벌 심사위원장 덕신 스님은 "올해 특히 더욱 높아진 합창단의 수준과 열기에 감동하였다"고 평가하며 "불교합창페스티벌

이 음성공양 본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기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격년으로 개최되는 불교합창페스티벌은 2017년 제7회 대회가 열린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전주박물관, '당송전환기의 오월' 전

국립전주박물관은 12월 20일까지 기획 특별전 '당송전환기의 오월(吳越)'을 개최한다. 전시는 '당송전환기의 오월(吳越)'과 '오월 국부의 원전 월요(越窯)', '불국토(佛國土) 오월', '오월과 후백제(後百濟)' 등 4개의 주제로 나눠 구성된다.

이번 전시에서는 소주박물관의 주요 소장품인 호구 운암사탑(虎丘 雲岩寺塔) 및 서광탑(瑞光塔)에서 발견된 불교미술품을 중심으로 오월 국부의 원전이 되었던 월요(越窯) 비색 청자(秘色靑瓷), 무덤에서 출토된 각종 부장품(副葬品) 등 130여점

이 선보인다.

'등으로 만든 십일면관음보살입상(十一面觀音菩薩立像)'을 비롯해 '불상을 새긴 동경(銅鏡)', '녹나무로 만든 경상(經箱)' 등 중국 국보급 유물 4점을 포함한 소주박물관의 중요 소장품들이 다수 출품됐다.

서광사탑 출토 '진주사리보당'은 복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오월 불교미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진귀한 보물 중의 하나이다.

전시연계 프로그램으로 국제학술심포지엄 '오월과 후백제'도 11월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거 제 멸 치

청정지

거제, 가조도, 섬마을은 계절에 따라 멸치, 멥게, 굴, 대구, 수산물을 생산하는 곳으로 주문 즉시 택배로 신선함을 확인하실 수 있게 약속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주문 환영
바자회 용 멸치, 특상품 취급

※ 가격은 수산물이라 시가별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멸치 1박스 1.5kg

● 종류 : 참멸치, 볶음용 멸치, 다신멸치
청어멸치는 2월경 부터 취급 (택배는 멸치 5박스이상 주문 시 택배비 무료)

퐁퐁퐁 멸치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 박동열)
구입문의 :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경희수산(주) 대표 (두손모음)

은銀

염주 합장주 금강저 팔찌 목걸이 반지 모든것

9mm 금강저팔찌 B형 115,000원

10mm 반아심경 평반지 42,000원

10mm 반아심경 회전반지 84,000원

9mm 금강저팔찌 115,000원

사각금강저 두줄 팔찌 180,000원

10mm 만자 팔찌 130,000원

「인터넷·네이버 주얼드림」
클릭하면
염주·목걸이·팔찌·반지 기타
다양한 불교용품이
가득 소개되어 있습니다.

■ 구입문의

- 공장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동현로 237-1 ☎ 031-969-9495 / 010-5441-9495
- 매장 : 서울 남대문 우주상가 3층 314호 주얼드림 ☎ 02-318-2314 / 010-8922-5141
- 계좌번호 :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주얼드림)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가 느려짐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축적되어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빠지는게 문제다. 체중은 줄어도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